

일반
논문

제주 제2공항 반대 제주도청 앞 천막촌운동*

네트워크된 사회운동의 성격을 가지는 커먼즈운동

박서현 _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논문요약

본 논문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면서 제주도청 앞에 세워진 '천막촌'이 전개한 운동의 성격을 분석한다. 천막촌운동은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의 주민이나 제주 시민사회활동가를 포함하는 새로운 주체가 참여하고 주도했던 운동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주체는 제주의 기존 사회운동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아울러 천막촌운동은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이 연대하여 전개했던 제주의 기존 사회운동만이 아닌 기타 환경운동과도 차이를 보인다. 본 논문은 천막촌운동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확인한 다음 '공통적인 것의 구성', '공동체 기반 민주주의', '예시적 정치'라는 논점을 중심으로 천막촌운동의 성격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천막촌운동이 네트워크된 사회운동의 성격을 가지는 커먼즈운동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주요어:** 제주 제2공항, 제주도청 앞 천막촌, 커먼즈운동, 네트워크된 사회운동, 커먼즈

1. 서론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제주 성산읍을 건설 예정지로 하는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제2공항 건설은 2019년 1528만 명이었던 제주 관광객이 2035년에는 45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하에 강행되는 사업으로서(시사IN 2020/10/19), 2000년대 중반에 시작하여 201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이주 붐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확장된 제주 관광 개발의 첨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도 내 쓰레기 매립시설 포화율이 이미 99.9%에 달했을 뿐 아니라(뉴스1제주 2019/1/18) 관광객 급증에 따라 치안의 불안정성이 증가하여 제주도는 2016~2018년 사이 인구 10만 명당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제주의소리 2019/10/27). 관광 개발의 심화에서 비롯되는 환경 파괴와 사회문제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제주 시민사회는 2017년 11월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이하 범도민행동)을 결성하여 2016년 7월 결성된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읍 대책위’(이하 성산읍대책위)와 함께 제2공항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그런데 사실 제주 시민사회가 제2공항 반대운동의 중심이 된 것은 2019년 하반기부터였다. 구체적으로 2019년 7월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를 결성한 이후부터 제주 시민사회는 제2공항 반대운동을 견인할 수 있었다. 비상도민회의 결성 이전에는 시민사회 역량이 제2공항 반대운동에 결집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비상도민회의 결성 이전까지는 제2공항 반대운동에서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범도민

행동이, '지역'의 대표성을 성산읍대책위가 가지고 있었지만 '투쟁'의 대표성은 '제주 제2공항 반대 도청 앞 천막촌'(이하 천막촌)이 가지고 있었다.

천막촌은, 도민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제주도정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2018년 12월 19일 도청 앞에 천막을 치고 단식투쟁을 시작한 성산읍 주민과 연대하기 위해 세워졌다.¹⁾ 사실 천막촌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제2공항 반대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됐다고 보기 힘들다. 2018년 4월 제주시청 앞에서 개최된 '제2공항 반대 범도민 결의대회' 같은 제2공항 반대집회가 간헐적으로 열리기는 했지만 말이다. 제2공항 반대운동은 천막촌의 형성과 함께 본격화됐으며, 시민사회의 역량이 제2공항 반대운동에 결집될 수 있었던 것도 천막촌운동에 의해 제2공항 문제가 제주사회의 화두로 더 부각됐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천막촌이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시기부터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제주에서 점점 더 상승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 여론조사가 시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1) 천막촌의 형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단식투쟁에 연대하여 제주 녹색당이 2019년 12월 29일 천막을 쳤다. 2019년 1월 7일 제주시청의 행정대집행으로 천막이 철거됐다. 하지만 같은 날 밤 사람들이 다시 천막들을 치게 된다. 이렇게 세워진 천막들에는 '영리병 원 반대하는 청년, 제2공항 반대하는 청소년 천막', '페미니즘 시민천막', '방문자환영 캠페천막', '여성천막', '예술행동천막', '연구자공방천막', '비무장 평화의 섬 천막',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읍 대책위 천막' 등이 있었다. 이 천막들은 행정대집행이 있는 지 불과 열흘 만에 세워진 것이었다. 천막들을 세운 사람들은 10여 개의 천막들을 천막촌으로 불렀고, 천막촌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연구자·청소년·청년·시민 등을 천막촌 사람들로 불렀다.

것은 분명하지만, 마찬가지로 분명한 것은 천막촌이 운동의 중심에 있던 시기의 여론조사들에서 제2공항 반대 비율이 점점 더 높아졌다는 사실이다.²⁾ 형성 이후부터 2019년 중반까지 제2공항 반대운동을 견인했던 천막촌운동은 이전의 제주 사회운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주체가 참여하고 주도했던 운동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천막촌운동의 전개 과정과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제주의 기존 사회운동들과 구분되는 천막촌운동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환경운동적 성격을 가지는,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제주의 기존 사회운동들과의 차이

천막촌은 국토부나 성산읍이 아닌 제주도청 앞에 세워졌다. 이 점이 천막촌운동과 제주 사회에 존재했던,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기존 사회운동의

2) 예컨대 국토부의 건설계획 발표 직후였던 2015년 12월 여론조사에서는 건설 찬성 71.1%, 반대 28.9%였고, 2017년 9월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63.7%, 반대 24.0%였다. 2018년 2월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53.2%, 반대 38.3%였지만 2019년부터는 찬성 비율이 과반 이하로 떨어졌다. 2019년 6월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8.6%, 반대 47.1%, 2019년 9월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7.9%, 반대 45.5%였다(연합뉴스 2021/2/18). 나아가 찬반을 떠나 제2공항 건설에 대해 공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80%가 넘으며 도의회에 공론화에 대한 특단의 결단을 촉구하는 청원서에는 1만 2,900여 명이 서명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헤드라인제주 2019/9/18), 천막촌이 제2공항 반대운동의 중심에 있던 시기에 제2공항 반대 여론이 커졌으며 제2공항 문제가 제주도민 자신의 문제로서 인식된 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차이를 만들어낸 우선적·일차적 이유였다. 환경운동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회운동들은 제주사회에 존재해 왔지만 이 운동들은 ‘탐동 공유수면 매립 반대운동’(이하 탐동운동),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이하 강정운동)과 같이 해당 ‘지역’에서 전개된 운동들이었다. 이와 달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천막촌의 공적 공간 점거는 제주 환경운동사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나아가 천막촌운동의 주체와 적대, 목표는 기존 환경운동과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단적으로 말해서 천막촌운동은 새로운 민주주의 혹은 삶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네트워크된 사회운동’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은 인터넷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는 신사회운동을 ‘네트워크된 사회운동(networked social movements)’으로 분석한 바 있으며(카스텔 2015), 엘리자베타 칸젤로시(Elisabetta Cangelosi)는 ‘월가점거운동(occupy wall street movement)’ 같은 네트워크된 사회운동이 커먼즈운동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Cangelosi 2014).³⁾

천막촌운동은 네트워크된 사회운동의 성격을 가지는 커먼즈운동으로 이해될 때 그 특징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성격의 커먼즈 운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천막촌운동을 커먼즈운동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커먼즈운동들 중 네트워크된 사회운동의 성격을 가지는 커먼즈운동의 특징이 먼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기존 환

3) 커먼즈를 연구해 온 역사가 피터 라인보우(Peter Linebaugh) 역시 점거 공간인 광장이 커먼즈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라인보우 2021, 38).

경운동들과 구분되는 천막촌운동의 특징이 제시되고 이러한 특징이 다시 금 커먼즈운동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 제시될 때 비로소 천막촌운동을 커먼즈운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실한 이해일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1) 이론적 배경

천막촌운동이 네트워크된 사회운동의 성격을 가지는 커먼즈운동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카스텔이 분석한 네트워크된 사회운동이 무엇인지 검토하기로 하자. 카스텔은 네트워크된 사회운동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종류의 사회운동인 신사회운동으로 이해한다(카스텔 2015, 35). 인터넷 기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를 활용하여 수평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존재가 오늘날의 사회운동의 필요조건이다.

수평적 의사소통은 운동의 조직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운동 조직이 덜 수직적이고 운동이 더 참여적이다. 운동에는 지도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운동이 극적 사건에서 촉발되는 경우에도 도심 광장 같은 공적 공간에서의 실제적 집결에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의사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지털 네트워크, 사이버 공간이 운동의 거점 중 하나인 것이다.

물론 사이버 공간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네트워크된 사회운동은 공적 공간의 점거를 통해 구현된다(카스텔 2015, 62). 다시 말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집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러한 결집이 기반이 되어

공적 공간에의 집결, 공적 공간의 점거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점거된 공간에서 이 공간의 자율적 관리, 연대의 실험이 이루어진다. 결국 사이버 공간과 도심 공간의 점거 및 점거된 도심 공간의 자율적 관리 등이 네트워크된 사회운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카스텔 2015, 202-203).

칸젤로시는 네트워크된 사회운동과 같은 신사회운동이 자발적 참여, 수평적 의사소통, 집단의 공동체적 성격, 점거 공간의 커먼즈적 성격과 같은 점 때문에 커먼즈운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Cangelosi 2014, 10-11; 정영신 2018, 153). 점거 공간의 공동 관리와 책임 공유가 – 사이버 공간만이 아니라 – 물질공간을 거점으로 하는 네트워크된 사회운동을 커먼즈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차적·우선적 측면이다. 특히 물질공간에 대한 점거를 통해 다소간 다른 지향들과 목표들을 가진 운동 주체들이 연합하여 공동의 것,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실 커먼즈운동에는 예컨대 도시텃밭을 공유지로서 함께 가꾸는 운동, 마을주민들이 공동소유한 공동 목장을 공동 자원으로 활용하여 마을만들기를 실천하는 운동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공적 공간을 공동 사용하는 주체들이 해당 공간을 ‘공적인 것(the public)’이 아닌 시민들의 ‘공동의 것(the common)’으로 만드는 커먼즈운동,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는 커먼즈운동도 존재한다.⁴⁾ 이러한 운동으로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의 경의

4) 여기서는 공적인 것과 공동의 것을 구분하기 위해 공적인 것을 국가와 관련된 것, 국가적인 것으로 이해했다. 유의할 것은 공적인 것이 본래 국가와 관련된 것, 국가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공적인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 ‘푸블리쿰’(publicum)이 단순히 국가 행정이 아닌 모든 시민으로 구성된 전체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점

선 철도부지에서 이루어졌던 경의선공유지운동을 들 수 있다(박배균·이승원·김상철·정기황 2021). 이 운동은 국가의 공간을 공동으로 점유하면서 공간의 성격을 변형하는, 즉 해당 공간을 공적인 것에서 공동의 것, 커먼즈로 변형하는 커먼즈운동이었다.⁵⁾

본 연구는 천막촌운동을 경의선공유지운동과 구분되는, 또 다른 유형의 커먼즈운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커먼즈운동에 자율주의(Autonomism) 계열의 운동이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 정치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와 그의 제자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가 대표하는 자율주의는 특이한(singular) 주체들인 ‘다중(multitude)’이 공통적인 것(the common, 공동의 것)을 구성하면서 자기 변형(self-transformation)하는 운동으로서의 커먼즈운동을 강조한다(네그리·하트 2012, 119-134; Hardt·Negri 2017, 99-100)

네그리와 하트에게 커먼즈, 공통적인 것은 인류 모두의 것인 지구와 그것의 생태계이자 동시에 지식·정보·데이터·코드·이미지와 같은 사회적 협력의 산물이다(네그리·하트 2014, 16). 그리고 다중은 공통적인 것을 수탈하

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적인 것과 국가적인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예컨대 ‘공중(public)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는 국가가 원하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국가서비스(state service)와 같은 것이 아니다(웨인 라이트 2014, 16; 백영경 2017, 113; 헬프리히 2020; 다도·라발 2020).

- 5) 경의선공유지운동 이외에도 강정운동을 사회운동적 성격을 가지는 커먼즈운동으로 이해하는 논의도 있다. 이 논의는 강정마을 공동체의 동네마당이자 사랑방, 놀이터, 쉼터, 성소로서 존재했던 ‘구럼비’(윤여일 2017, 77)를 커먼즈로 규정하면서 발파로 인하여 구럼비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커머닝, 즉 ‘커먼즈 없는 커머닝’을 강조한다(정영신 2018, 171).

려는 자본과 국가에 맞서 투쟁하는 주체이다. 즉 다중은 자본과 국가의 수탈에 맞서 공통적인 것을 (재)구성하는 투쟁 속에서 ‘만들어지는’ 주체이다. 다중의 구성은 공통적인 것의 구성과 함께 이루어진다. 달리 말해 다중은 이러한 구성 과정 바깥에서 어떤 속성을 가진 실체와 같은 것으로서 존재하는 주체가 아니다. 이러한 구성의 하나가 [지배적 사회구조 안(within)에서 새로운 외부(outside)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의 ‘예시적 정치(prefigurative politics)’를 구현하는 소규모 공동체운동으로서의 점거운동인데(Hardt and Negri 2017, 274-275), 천막촌운동은 이와 같은 의미의 커먼즈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천막촌운동이 커먼즈운동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는 국내에 등장한 구체적인 사회운동을 이 운동론과 접목하여 분석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⁶⁾ 이러한 접목과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는 국내 커먼즈운동론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물론, 예시적 정치를 구현하는 점거운동은 쟁취하려는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었다는 점, 공동 점거를 실천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사회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요구했다는 점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데(카스텔 2015, 164, 166), 이는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요구사항이 있었던 천막촌운동과 일견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실 천막촌운동은 대책사업에 반대하는 운동만으로 한정시킬 수 없는 측면

6) 이러한 접목과 분석은 2008년 촛불에 대한 연구(조정환 2009) 등에서 이루어진 바 있지만, 본 연구는 그 대상과 범위에서 위 연구와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

들 또한 가지는데, 이하에서는 이 논점까지 포함하여 천막촌운동이 어떤 점에서 커먼즈운동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2) 환경운동적 성격을 가지는,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기존 사회운동들과의 차이

『광장이 되는 시간: 천막촌의 목소리로 쓴 오십 편의 단장』(윤여일 2019)은 천막촌운동에 참여했던 저자의 경험에 입각하여 운동의 의미를 제시하는 저서로서, 운동에 대한 저자의 단상들이 50편의 단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역으로 이는 『광장이 되는 시간』을 천막촌운동의 성격을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저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광장이 되는 시간』은 예시적 정치를 구현한 천막촌운동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에 가깝다. 이외에도 천막촌운동에 대해 부분적으로 언급하는 논문이 있으며(주윤정 2020, 99) 기반시설 공동관리자원으로서의 공항이라는 틀에서 제2공항 반대운동을 분석하는 논문은 있지만(장훈교·서영표 2018), 천막촌운동 자체를 분석한 작업은 거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천막촌운동의 성격을 규명하는 별도의 학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천막촌운동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천막촌운동을 국책사업을 포함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환경운동의 하나로 이해하고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기존 운동들에 대한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이 운동들과 천막촌운동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안·영덕·밀양·성주 등에서 전개된 다양한 운동들이 있지만 환경운동의 성격을 가지는 제주사회의

최초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탑동운동을 검토함으로써 특히 운동 ‘주체’와 관련한 양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천성산 내원사 산감⁷⁾이었던 지울을 중심으로 전개된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이하 천성산운동)을 검토함으로써 운동의 주체와 관련한 차이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천막촌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던 ‘지역화된 사회운동’(정영신 2018, 151)으로서의 강정운동을 검토함으로써 강정운동과 구분되는 천막촌운동의 독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탑동운동은 1988년 해녀들의 집단적인 항의농성에서 시작했으며 이후 주민운동과 결합하기 위하여 제주의 많은 단체들이 ‘탑동문제해결범도민회’를 결성했다(장훈교 2019, 276, 284). 범도민회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반대범도민회’로 재구성되었으며, 제주도개발특별법반대범도민회는 현 제주 참여환경연대의 모태가 됐다(장훈교 2019, 267). 탑동운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주민운동’과 ‘범도민운동’ 혹은 ‘지역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이 결합하여 제주의 환경운동이 전개되어 왔으며, 이는 강정운동 이전까지의 제주 환경운동의 공통점이었다. 다시 말해 강정운동 이전까지 제주 환경운동의 두 주체는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활동가’였다. 지역에서 대책위를 꾸리고 환경단체가 대책위를 지원하는 형태로 환경운동이 전개됐던 것이다. 물론 이는 환경단체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법체계상 환경단체들이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여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7) 산감(山監)은 사찰 인근 산림 환경을 관리하는 직책이다(이시운 2018, 171).

(진상현 2006, 87).

이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 환경운동으로 천성산운동을 들 수 있다. 지율이 천성산 내원사 산감이었다는 점에서 지역성을 대표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천성산운동은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된 운동이라기보다는 지율이라는 특정 개인이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운동으로 볼 수 있다(진상현 2006, 87; 우석훈 2005). 지율은 수차례 단식을 감행했는데 지율의 단식은 운동의 국면을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심하나 2013, 215). 그리고 지율은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투쟁하기도 했지만 예컨대 부산환경운동연합이 국무총리실 산하 재검토위원회에 참여하는 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에 지율이 반대했던 것처럼, 주류 환경운동단체와 갈등을 겪었다(진상현 2006, 86; 유채완·구도완 2016, 364).

특정 개인이 운동 국면을 전환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은 천성산운동과 천막촌운동의 차이 중 하나다. 물론 성산읍 주민의 단식이 천막촌이 제주도청 앞에 세워지게 된 결정적 계기였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후 천막촌운동은 특정 개인의 투쟁을 통해 전개됐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천막촌은 점거 공간을 공동관리하고 운동을 공동조직하는 주체들의 '집단적 실천'을 통해서 전개됐다. 이런 점에서 천막촌운동은 개인적 감수성에 의거하여 자연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운동과는 다른 운동이었다.⁸⁾

8) 천성산운동의 경우 도롱뇽을 당사자로 하는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소송에 공감하여 전국

환경운동 주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강정운동이다. 그것은 ‘지킴이’의 활동이 강정운동에서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강정운동의 지킴이들은 강정마을의 주민이 되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던 기존 주민들과 함께 공동투쟁을 전개했다. 지킴이들은 제주 시민사회활동가가 아니라 외지에서 온 사람들, 소위 ‘비제주사람’이었다. 그리고 지킴이들을 마을에 수용하고 공동투쟁을 전개하면서 강정마을 공동체는 - 외부세력과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 ‘재구성’되었다(정영신 2018, 167). 외지에서 온 지킴이들과 기존 주민들의 공동투쟁 및 이러한 공동투쟁을 통한 공동체의 재구성은 제주의 이전 환경운동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새로운 주체가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는 점에서 천막촌운동은 강정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것인 동시에 강정운동과는 구분되는 사회운동이었다. 물론, 천막촌운동과 강정운동의 차이는 우선적으로 천막촌이 성산읍이 아닌 제주도청 앞에 세워졌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즉 강정운동에서는 공동투쟁을 통해 공동체가 ‘재구성’됐던 것과 달리 천막촌운동에서는 공적 공간의 점거와 함께 공동체가 ‘창안’됐다. 새로운 주체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가 창안된 것이다. 이와 같이 천막촌운동은 기존 환경운동들과는 다른 면모를 가진 운동이었다.

의 시민들이 ‘도롱뇽의 친구들’을 구성했다. 도롱뇽의 친구들은 터널공사 반대를 위한 도롱뇽 소송의 소송인단으로서 2004년 말에는 40만 명에 이르렀다. 도롱뇽의 친구들은 피켓을 활용한 거리 시위 등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했다(심하나 2013, 226). 이와 같이 천성산운동에서 기존 환경운동과는 다른 측면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지옌의 단식 투쟁에 의해 국면이 변화되는 식으로 개인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운동으로 천성산운동을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천막촌운동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운동론 및 기존 사회운동들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천막촌운동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하여 천막촌에서 생산한 글들을 분석했다. 천막촌은 제2공항 반대운동 정세에 따라서 성명서들을 발표해 왔으며 2020년 10월 25일까지 발표된 성명서들은 “저항의 선언들, 제주도청 앞 천막촌 700일”(프레시안 2020/10/25) 제목하에 전문이 게재되어 있다. 이 성명서들은 천막촌운동을 분석하는 일차 자료로서 활용됐다. 아울러 연구자는 사이버 공간과 접거 공간이라는 두 공간이 중첩되어 있는 천막촌운동의 현장에서 천막촌운동을 조사하고 관찰해 왔다. 연구자의 참여관찰기록은 천막촌운동의 특징을 규명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3. 천막촌운동의 시기 구분

본 연구는 천막촌운동의 각 시기별 특징을 사회운동론적 접근법에 입각하여 검토한다. 특히 본 연구는 (알랭 투렌의 사회운동 유형화를 반영하여 사회운동을 분석했던) 카스텔의 사회운동 유형화에 입각하여(카스텔 2008, 113) 천막촌운동의 각 시기별 특징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천막촌운동의 각 시기별 운동의 주체와 대상(적대) 그리고 목표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에 입각할 때 2년 3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천막촌운동의

주체·적대·목표에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천막촌운동이 초기에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중심으로 제주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이었다면 후기로 갈수록 천막촌운동은 제2공항 건설 반대에 집중하기보다는 제주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운동으로 변해갔다.

천막촌운동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천막촌의 형성부터 비상도민회의 결성까지이고(2018.12.19~2019.7.25), 두 번째 시기는 비상도민회의 결성부터 600일 전체회의까지이며(2019.7.25~2020.8.7), 세 번째 시기는 600일 전체회의부터 천막촌의 자진 철거까지다(2020.8.7~2021.3.9). 사실 자진 철거를 천막촌운동의 소멸이라고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철거 이후에도 천막촌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들을 공유했고 제2공항 건설 등과 관련된 성명서를 작성·배포하기 위한 온라인 회의를 개최했다.⁹⁾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천막촌운동을 세 시기로 구분한 것은 천막촌을 자진 철거함으로써 공적 공간의 점거라는 천막촌운동의 주요 성격이 소실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1) 초기: 천막촌의 형성부터 비상도민회의 결성까지(2018.12.19.~ 2019.7.25)

천막촌의 형성은 시민들의 자발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물론 제주 녹

9) 예컨대 천막촌 사람들은 논란이 된 (대한항공 소유의 민간 비행장인)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으로 활용하는 안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회의를 2021년 6월 26일 개최했다.

색당 같이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조직이 천막촌의 일원이 된 경우도 있었지만, 기성 조직이 없던 상황에서 시민들이 천막을 세우면서 조직을 구성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연구자공방천막’은 제주에 거주하는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세운 것으로서, 관심사가 비슷했던 연구자들이 천막촌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연구자공방’을 구성하고 천막을 친 것이었다. 달리 말해 이 연구자들은 서로 지인들이기는 했지만 천막을 치기 전까지는 조직을 구성한 적이 없었다.

물론 천막촌 형성의 직접적 계기는 성산 주민의 단식이었으며 또한 천막촌이 처음 세워질 때에는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읍 대책위 천막’이 함께 세워졌었다. 이와 같이 천막촌운동의 초기에는 성산 주민이 천막촌에 결합되어 있었다. 아울러 비상도민회의 결성 이후 제2공항 반대운동을 견인했던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은 천막촌이 당시 제2공항 반대운동의 중심이라는 점을 주목하고서 천막촌 활동들에 참여하고 시민사회와 천막촌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했다.

성산 주민과 시민사회 활동가 이외에도 제주시에 거주해 온 시민들과 2000년대 중반 이후 제주에로 이주해 온 이주민들, 즉 제주시의 선주민인 시민들과 소위 비제주 사람인 이주민들이 천막촌 사람들이 됐다. 이 주체들은 제주에서 제주관광개발의 폐해를 목도해 온 제주시의 시민들, 지킴이로서 강정마을의 주민이 된 이주민들, ‘송악산 동물테마파크 반대운동’과 같은 제주관광개발의 각 현장에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주민들, 연구자공방을 구성한 연구원들 등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성격의 주체들, 특이한 주체들이 공동의 목표하에 결집한 이 시기의 천막촌운동은 다종의 공

동투쟁으로 전개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천막촌은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했다. 이 활동들에는 주중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제주도청 앞에서 진행한 아침집회, 성산 주민의 단식에 호응하는 연대 단식, 2월 25일 진행한 제2공항 건설 저지 백배,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도청 앞에서 진행한 ‘공항 말고 합창’(3월 28일), ‘공항 말고 장터’(4월 27일), ‘공항 말고 광장’(5월 31일), 연구자공방 연구원들이 주도한 ‘기후 정의와 공항 확장 반대운동 그리고 제주의 선택’ 세미나(4월 10일)와 ‘공론조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운동’ 세미나(7월 3일) 등의 세미나, 5월 15일 세계 병역 거부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여성 병역 거부 선언’ 등이 있었다.¹⁰⁾

위 운동들은 점거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활동들이었는데, 이러한 운동들 이외에도 천막촌은 사이버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운동들 또한 전개했다. 사이버 공간은 천막촌운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천막촌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통로였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자체 운동의 공간이기도 했다.¹¹⁾ 이러한 운동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천막촌라디오: 나는’, ‘천막촌에서 천막촌을 사고하다’를 들 수 있다. ‘천막촌라디오: 나는’은 천막촌에 결합한 이유 등을 묻고 답하는 천막촌 사람들 10인에 대한 공개 인터뷰였

10) 천막촌의 형성부터 2019년 6월 19일까지의 약사는 윤여일 2019, 14-21쪽에 정리되어 있다. 제주 사회에서는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는데(헤드라인제주 2019/9/5), 여성 병역 거부 선언은 제2공항 반대운동과 반전·평화운동의 연결을 보여주는 활동이었다(뉴스N제주 2019/5/14).

11) 이러한 점에서도 이 시기 천막촌운동에서 네트워크된 사회운동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고, ‘천막촌에서 천막촌을 사고하다’는 제2공항 반대운동을 포함하는, 천막촌에서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천막촌 사람들의 죄담이었다. ‘천막촌라디오: 나는’과 ‘천막촌에서 천막촌을 사고하다’는 천막촌 사람들이 그들의 ‘공통성’을 발견해 가는 시간이었다. 아울러 천막촌 사람들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천막촌의 활동을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생중계했다.

또한 천막촌 사람들은 6월 19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국토부가 주최할 예정이었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성산읍대책위, 범도민행동과 함께 무산시키는 직접행동을 실천했다. 천막촌의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제2공항 건설의 주체인 국토부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이자 국책사업에 편승해 있는 제주도정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들이었다. 이러한 운동들의 목표는 일차적으로는 제2공항 건설을 저지하는 것이었지만, 사실 이 운동들은 지역문제·생태문제·평화문제·노동문제 등 제주 사회에 산적한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결집한 다중들이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중심으로 제주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취지를 가지는 것이었다.

2) 중기: 비상도민회의 결성부터 600일 전체회의까지(2019.7.25.~2020.8.7.)

2019년 7월 2일 제주의 시민사회단체, 지역조직 등 113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비상도민회의가 결성된 이후¹²⁾ 천막촌은 제2공항 반대운동에서 더 이상 중심적 위치에 있지 않았다. 운동 주체와 관련하여 비상도민회의

의 결성은 성산 주민과 시민사회 활동가가 천막촌에서 분리됨을 의미했다. 그리고 제2공항 반대운동이 비상도민회의를 중심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이 시기 천막촌운동의 활력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사실 천막촌이 비상도민회의에 단체로서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논의가 천막촌에서 제기되었지만 천막촌 사람들은 회의를 거쳐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성산 주민과 시민사회 활동가가 이미 분리된 상황에서 천막촌 사람들은 천막촌이 비상도민회의 산하조직이 될 경우 천막촌운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지도부 없는 수평적 의사결정을 특징으로 하는 천막촌과, 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한 비상도민회의는 조직 방식·운영 방식·활동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천막촌 사람들은 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필요에 따라 협력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운동 주체의 분리는 운동 활력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이후 천막촌은 제2공항 반대운동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도민회의의 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이 시기 천막촌이 주체로서 전개한 제2공항 반대운동은 주중 아침집회¹³⁾와 성명서 작성·배포로 한정됐다. 하지만 천막촌 사람들 중에는 예컨대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로 인하여 파괴·오염

-
- 12) 천막촌에 참여하면서 조직을 결성한 경우에는 연구자공방 같이 비상도민회의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비상도민회의는 천막촌과 달리 개인이 아닌 시민사회단체나 지역조직과 같은 '단체들'이 연합된 조직이었다.
 - 13) 아침집회는 3~5명의 참여자들 중 1인이 제주도청 앞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제2공항 건설의 부당함과 제주도정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동안 나머지 참여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되고 있는 강정천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제주의 각 현장에서 운동을 실천하는 주체들이 있었다. 물론 이는 천막촌 사람들에게는 제2공항 건설이 관광개발의 첨단이지 그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했으며, 관광개발에 저항하는 다양한 운동들을 전개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다소 도식적으로 말한다면, 비상도민회의가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위해 결성된 것이었다면 천막촌은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중심으로 제주 사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다. 반대운동의 중심이 비상도민회의가 된 것은 천막촌 사람들에게는 제2공항 건설과는 다소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의제로 운동 의제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이런 점에서 이 시기 천막촌운동이 여전히 국토부와 제주도정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었고 그 목표도 제2공항 건설을 저지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운동의 활력이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특히 운동의 목표에 있어 변화가 일어나는 조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막촌은 600일을 맞게 됐다.

3) 후기: 600일 회의부터 천막촌 자진철거까지(2020.8.7.~2021.3.9.)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천막촌의 대면 활동 축소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천막촌 사람들은 아침집회를 계속해서 이어갔다. 그리고 반대운동의 중심이 비상도민회의가 된 다음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주로 소통해 온 천막촌 사람들이 600일이었던 2020년 8월 7일 점거현장에

서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사실 600일 회의에서는 천막촌을 정리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천막촌운동의 활력이 점점 더 소실돼 갔을 뿐 아니라 천막촌이 시민사회와 지역조직으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어 갔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아침집회는 소수의 주체가 전담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천막들이 이미 자진 철거된 상태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600일 회의는 천막촌의 정리가 아니라 천막촌운동의 목표를 재설정하는 회의가 되었다. 한편에서는 제2공항 건설계획이 아직 폐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천막촌을 철거할 경우 이는 운동의 포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천막촌을 정리하는 대신 유지하고 아침집회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다른 한편에서 설령 제2공항 건설계획이 폐기되더라도 관광개발은 지속될 뿐 아니라 심지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2공항 건설 이외에도 관광개발로부터 비롯되는 환경문제와 노동문제 등 제주의 여러 사회문제를 도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비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지게 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이제 천막촌운동의 목표는 이전 시기보다 더 직접적으로 제주 사회의 근본적 변화가 됐다. 이와 같이 천막촌운동은 후기에 사회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요구하는 저항의 성격을 보다 더 강하게 띠게 됐다.¹⁴⁾ 그리고 이에 따라 운동의 대상, 적대가 제주의 난개발을 추동하는 자본과 이를 부추기는 지방정부, 국가로 확대됐다. 물론 자본과 국가는 초기부터 적대의 대

14) 다시금 이러한 점에서 천막촌운동에서 네트워크된 사회운동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상이었지만, 관광개발 자체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보다 더 강하게 가지게 됨으로써 적대의 초점이 국토부에서 자본 일반으로 확대됐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제2공항 반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시민사회를 대신하여 천막촌이 제주사회의 근본적 문제들에 대응하는 사회운동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물론 염원과 구체적 현실 사이에는 격차가 존재했으며, 운동의 활력이 감소한 천막촌이 이 격차를 실제로 메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2공항 찬반 여부를 묻는 도민 여론조사(2021년 2월 15-17일 실시) 결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도민 비율이 찬성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온 이후(한겨레 2021/2/18)인 2021년 3월 9일 천막촌은 자진 철거됐다. 이 여론조사는 비상도민회의가 추진한 제주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청원을 도의회가 받아들인 다음(한겨레 2019/9/24) 도정과 합의하여 실시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향후 제2공항 건설에 구속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됐다. 이것이 2018년 12월 19일 성산읍 주민이 단식투쟁을 위해 세운 천막에서 시작하여 대략 2년 3개월 동안 지속된 천막촌이 자진 철거된 직접적 이유였다. 물론 자진 철거 이후에도 천막촌 사람들은 온라인 소통 공간을 유지했지만, 아침집회와 같이 천막촌이 주체로서 실천하는 대면 활동들은 중단됐다.

4. 천막촌운동의 특징

천막촌운동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제주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운동들을 전개해 온 주체들이 결집했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천막촌운동의 특징은 그것이 특이한 주체들이 그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집하여 공통적인 것을 구성하는 운동 - '커머닝'(commoning) - 이었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커머닝이 절대적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공적 공간을 점거하면서 형성된 공동체가 공적 공간(public space)을 공동체의 공동 공간(common space)으로 변형하면서 예시적 정치를 구현했다는 점이 천막촌운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통적인 것의 구성', '공동체 기반 민주주의', '예시적 정치'라는 세 논점을 중심으로 천막촌운동의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공통적인 것의 구성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천막촌 사람들 사이에는 천막촌에 결합한 핵심적 이유에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제2공항 입지가 결정된 후 대책사업화에 진행될 강압적 토지수용과 공항 건설 이후 발생할 항공기 소음 같은 '지역 문제'를 중심으로 천막촌에 결합한 주체들이 있었다. 성산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중심으로 천막촌에 결합한 주체들이었다.

또한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천막촌에 결합한 주체들도 있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세 차례나 보완을 요청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제주의소리 2021/7/7) 제2공항 건설이 낳을 환경 파괴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천막촌 사람들 중에는 제2공항 연계도로라는 혐의가 있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을 구성한 주체들이 있었는데,¹⁵⁾ 이들은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천막촌에 결합한 주체들이었다.

아울러 제주사회에서는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주로 강정운동을 전개해온 지킴이들 중에서 천막촌에 결합한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천막촌에는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2공항 건설이 '생명 평화의 섬'인 제주의 가치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주체들이 있었다.

지역 문제·생태 문제·평화 문제 이외에도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천막촌에 결합한 주체들이 있었다.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하는 주체들은 국책사업하에 제2공항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국토부, 즉 국가의 비민주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뿐 아니라 제주에 지어지며 도민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될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방관적 태도를 취

15) 이들은 멸종위기종인 애기풀소똥구리 등을 직접 발견하는 활동 등을 실천함으로써 확장 공사를 중단시키는 결과를 낳았다(제이누리 2019/06/12).

하는 제주도정이 과연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가라는, 제주도정의 비민주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주체들은 제주도민이 제주의 문제를 결정한다는 ‘자기결정권’이 제2공항 반대운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구호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물론 제2공항 건설이 지역 문제·생태 문제·평화 문제·민주주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중첩된 문제라는 점이 천막촌에 다소 다른 주안점과 목표를 가지는 다양한 주체들이 결합하게 된 이유였다. 심지어 제주 청소년들이 도교육청 및 교사들이 제2공항 건설이 낳을 문제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2019년 6월 6일 결성한 청소년모임 ‘우주’(우리도제주도)가 도청 앞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천막촌의 일부 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제2공항 건설은 교육 문제와도 연관되었다.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공통적인 것으로서의 천막촌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서로 배운 것은 제주 사회에 산적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제2공항 건설이 성산이라는 특정한 지역의 문제만이 아닌 제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컨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공통적인 것의 구성을 통해 다중이 비로소 배울 수 있었던 어떤 ‘앎’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배움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자기를 변형하며 다중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공통적인 것을 구성하는 투쟁 속에서 다중이 구성됐다는 점에서 천막촌운동은 우선적·일차적으로 커먼즈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16) 역으로, 한 심사위원이 지적했듯이, 운동 주체의 분리는 공통적인 것의 구성을 약화시키

2) 공동체 기반 민주주의

월가점거운동을 포함한 점거운동의 대표적 구호는 “우리가 99%다”, “그들은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였다(카스텔 2015, 118). 이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제기, 즉 대표성을 상실한 정치 엘리트가 사람들을 대변하는지를 묻는 것,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판의 연장선에서 점거운동의 현장에서는 속의 민주주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의 참여 민주주의가 실천됐다. 이러한 실천은 운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예시하는 것이었다.

월가점거운동에서도 합의에 이를 때까지 대화와 토론을 거치면서 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카스텔 2015, 1223)과 마찬가지로 천막촌에서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만장일치를 통해 활동을 결정했고, 이를 위해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했다. 천막촌회의는 지도부가 미리 결정한 사항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 제시부터 운동 방향의 결정까지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는 회의였다. 이 때문에 천막촌회의는 기본적으로 3-4시간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천막촌운동은 제안된 활동에 대하여 제안한 주체가 책임을 맡는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건을 제안하는 주체의 의사가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제안된 안건을 다른 주체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살핌

는 결과를, (천막촌운동의) 커먼즈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있었기 때문에 천막촌은 만장일치로 합의된 운동을 실천했음에도 아침 집회·선전전·점거·백배·장터·세미나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었다.

제주도민은 그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숙원’의 실현과 부동산 투기의 우려라는 명분하에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었다(장훈교·서영표 2018, 339). 이와 대조적으로 천막촌에서는 지도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일 없이 운동 자체가 수평적 의사소통에 입각하여 절대적으로 민주적으로 조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팽배했다. 그것은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실현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민주적으로 조직된 사회운동의 결과로서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천막촌의 ‘공동체 기반 민주주의’는 누구도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다.¹⁷⁾ 물론, 천막촌의 공동체 기반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에 있어 합의와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네트워크에서의 수평적 조직화에 영향 받은 것이었다. 이와 같이 인터넷 네트워크는 SNS를 활용하여 단순히 회의를 소집하고 집회 참여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 천막촌은

17)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리가 비상도민회의와 천막촌의 조직 방식·운영 방식·활동 방식에서 차이를 만들어낸 이유였다. 비상도민회의의 의사결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준비한 안건을 대표자회의에서 승인하고, 승인된 안건을 다시금 집행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운영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역조직들에서 파견된 인원들로 집행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조직들의 대표들이 모이는 식으로 비상도민회의 전체회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합리적·효율적인 것이었지만 권한의 위임이 이루어지고, 안건의 결정·집행이 분리·일임된다는 점에서 천막촌의 조직 방식·운영 방식·활동 방식과는 다른 것이었다. 천막촌이 비상도민회의의 제2공항 반대운동을 지원했을 뿐 진정으로 공동투쟁을 실천하기 힘들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동이 절대적으로 민주적으로 조직되는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천막촌운동은 삶의 핵심적 문제에 대한 결정에서 도민은 그들의 권리를 위임하지 않는다는 민주주의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공동체에서 직접 구현하는 활동, 즉 '모두'가 공동의 것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결정하는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커먼즈운동이었다.

3) 예시적 정치

천막촌이 점거한 공간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보도였는데, 이 공간을 점거하면서 그것의 관리가 천막촌의 몫이 됐다. 점거와 함께 창안된 공동체는 해당 공간을 공동체가 운영하는 공동 공간, 커먼즈로 변형했다. 천막촌 사람들이 천막촌운동 후기에 운동의 활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공동 공간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제2공항 건설 저지를 포함하는 제주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공적인 것에 맞서 이러한 변화를 예시하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운동 후기에 천막촌은 점거 공간에서 또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삶의 새로운 형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예시하는 공간이었으며, 이것이 천막촌운동이 예시적 정치의 성격을 가지는 이유였다.

이와 관련하여 천막촌운동의 이러한 성격이 비상도민회의의 제2공항 '공론화' 전략에 대해 천막촌이 거리를 두는 이유가 되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론화 전략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천막촌 사람들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공론화 전략은 국토부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던

제2공항 건설을 실제로 저지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판단과, 여론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여론상으로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제주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을 제주도정이 수용하여 이루어진) 녹지국제영리병원 공론조사가 2018년 10월 4일 불허로 결정되어 영리병원 사업이 실제로 포기된 전례가 있다는 점 때문에 비상도민회의 주요 전략이 되었다. 사실 공론화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제주도정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의사와 국가의 정책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방안, 국가의 정책을 도민의 의사에 종속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도민들 자신이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천막촌 사람들은 공론화 전략을 제2공항 건설 저지를 포함하지만 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제주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오히려 먼 미래의 일로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것은 공론화 전략이 사회운동의 주체를 국가와 도정의 비민주성에 ‘저항’하는 존재에서 공명정대함을 현시하라고 국가와 도정에 ‘요청’하는 존재로 전략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천막촌 사람들은 제주 사회의 근본적 변화가 국가와 도정이 방조해 온 제주 사회의 문제들을 비판하는 사회운동의 결과로서만 도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론화 전략에 거리를 두었다. 그리고 이것이 천막촌이 운동의 활력이 감소된 이후에도 분명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제주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예시하는 공간으로서 한동안 남아 있었던 이유이자, 공적 공간을 커먼즈로서 계속해서 점거·유지했던 이유였다.¹⁸⁾

5. 결론: 천막촌운동의 의미

사실, 점거운동을 커먼즈운동으로 이해할 때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점거 공간에서 자본주의적 상품시장에 반대하는 요소들이 나타나는가이다. 터키의 게지공원(Gezi Park)의 점거에서 자본주의적 상품시장에 대한 비판과 대안경제 모델의 제안·실천이 이루어졌듯이 말이다(Cangelosi 2014, 11-12). 물론 이러한 측면들이 천막촌운동에서 직접적으로 강하게 드러났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점거 공간에서 자본주의적 상품시장에 반대하는 요소들이 나타나는 것은 더 근본적으로는 점거운동이 기존 사회체제의 위기에 대한 반응이자 기존 사회체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Cangelosi 2014, 14). 예컨대 월가점거운동이 대안경제 모델을 제안

18) 천막촌 자신 철거의 직접적 계기는 향후 구속력을 가질 것이라고 예견됐던 2021년 2월 15-17일 여론조사의 결과였지만, 천막촌운동의 활력은 2021년 초 이미 크게 축소된 상태였다. 600일 회의에서 예시적 정치를 구현하는 공간으로서 천막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염원이 천막촌운동의 재활성화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아울러 천막촌의 자신 철거가 결정된 이후 예시적 정치를 구현하는 공간을 없애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사이버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운동의 활력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점거 공간의 유지나 재점거가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점거 공간을 커먼즈로 유지하면서 공동체 기반 민주주의와 예시적 정치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운동 주체의 분리 이후에도 천막촌운동의 커먼즈운동으로서의 성격은 지속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이 천막촌에서 다중이 공통적인 것을 구성하는 활동이 약화되지 않았음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달리 말해 천막촌운동은 다중이 공통적인 것을 구성하는 활동으로서의 성격과 공적 공간을 민주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활동으로서의 성격이 중첩되어 있는 운동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중첩은 운동의 초기에는 강했으나 후기로 갈수록 천막촌운동은 전자의 성격보다는 후자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띠게 됐다.

하고 실천하기 이전에 자본주의적 상품시장의 폐해를 지적하고 민중을 대변하지 않는 정치 엘리트를 비판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하려 했던 운동이었듯이 말이다(카스텔 2015, 141).

천막촌운동은 우선적·일차적으로는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운동이었다. 하지만 사실 제2공항 건설은, 천막촌운동의 주체들에게는, 경제적 수익만을 위해서 개발을 추동하는 자본과 개발을 부추기면서 제주를 난개발의 현장으로 만드는 지방정부, 제주도정에 의한 고삐 풀린 제주판 신자유주의, 제주 관광개발의 첨단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천막촌운동은 제주 관광개발체제가 가져오는 위기에 대한 대응이자 체제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조직화를 통해서 공적 공간을 점거함으로써 이러한 저항을 표현하는 실천이었다.

운동의 초기부터 천막촌에서는 제2공항 건설이 2010년대 중후반에서 시작하여 2020년대 초반으로 이어지는 제주 관광개발체제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에, 관광개발의 중단과 같은 제주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2공항 건설 반대운동에 결집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했다. 그리고 이러한 결집을 통해서 천막촌 사람들은 공통적인 것을 구성하며 서로 배우고 다중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운동 주체의 분리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이러한 배움과 되기는 약화되기 시작했으며, 나아가 이러한 분리 이후 천막촌은 시민사회로부터 차츰 고립되어 갔다.

문제는 천막촌 사람들이 희구했던 제주 사회의 근본적 변화가 시민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점거운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는 점이다. 천막촌이 제2공항 건설반대 여론의 증가와 같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운동의 후기에도 천막촌이 기존 사회체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제주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예시하는 공간이라는 의미 혹은 효과를 실제로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즉 제주 사회에서 천막촌이 이러한 의미의 공간으로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¹⁹⁾

그럼에도 천막촌운동은 제주도청 앞의 공적 공간이 공동의 공간, 커먼즈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다중이 제주의 정치 엘리트가 과연 도민을 대변하는가를 물으면서 점거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러한 점거와 함께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다중이 제주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했다. “2015년 이후 제주 내려와 제2공항 반대하[는] 전문 데모꾼”(제주투데이 2019/11/24)은 이 새로운 주체, 다중의 ‘일부’를 지칭하는 언어에 다름 아니었다. 일부인 이유는 물론 제주관광개발의 폐해를 목도해 온 제주시의 일반 시민만이 아닌 제주의 시민사회 활동가와 지역 주민 모두가, 즉 소위 ‘제주사람’이 모두 다중이었기 때문이다. 천막촌운동은 이러한 새로운 운동 주체가 실천한 네트워크된 사회운동의 성격을 가지는 커먼즈운동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중~~

19) 예시적 공동체가 가지는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는 Hardt and Negri 2017, 275 참조.

참고문헌

- 네그리, 안토니오·마이클 하트. 2012. 『선언』. 조정한 역. 서울: 갈무리.
- _____. 2014. 『공통체』. 정남영·윤영광 역. 경기: 사월의 책
- 뉴스1제주. 2019/1/18. “‘매립률 99.9%’ 제주 쓰레기매립장.” <http://jeju.news1.kr/> (검색일: 2021/7/9)
- 뉴스N제주. 2019/5/14. “[영상]여성들, 왜 병역을 거부하는가?” <https://www.newsnjeju.com/> (검색일: 2021/7/9)
- 다도, 피에르·크리스티앙 라발. 2020. “정치적 시험으로서의 팬데믹: 전지구적 커먼즈를 주장하며.” 커먼즈번역네트워크 역. (<http://commonstrans.net/>) (검색일: 2021/7/18)
- 라인보우, 피터. 2021. 『도둑이야!: 공통장, 인클로저 그리고 저항』. 서창현 역. 갈무리.
- 박배균·이승원·김상철·정기황 편. 2021. 『커먼즈의 도전: 경의선공유지운동의 탄생, 전환, 상상』. 빨간소금.
- 백영경. 2017. “커먼즈와 복지: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시론.” 『ECO』 21(1). 111-143.
- 서울경제. 2019/05/01. “[썸_레터] “포화율 99.9%” 제주도는 왜 ‘쓰레기 섬’이 됐을까?” <https://www.sedaily.com/> (검색일: 2021/03/29)
- 시사인. 2020/10/19. “제주 제2공항 건설 뒷감당은 누가 하나.” <https://sisain.co.kr/> (검색일: 2021/7/9)
- 심하나. 2013. “천성산 갈등의 재해석: 도롱뇽 소송을 통한 생태주의의 확산.” 한국환경사회학회 편. 『환경운동과 생활세계』. 한울엠플러스.
- 연합뉴스. 2021/2/18. “제주 제2공항 ‘찬성’ 압도적→팽팽→‘반대’역전.” <https://www.yna.co.kr/> (검색일: 2021/9/26)
- 우석훈. 2005. “지을 스님의 질문, 이 사회는 어떤 질문인지 이해하고 있을까?” 『대자보: 진보와 정론의 인터넷신문』. <http://www.jabo.co.kr/> (검색일: 2021/9/28)
- 웨인라이트, 힐러리. 2014. 『국가를 되찾자』. 김현우 역. 서울: 이매진.
- 유채원·구도완. 2016.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에 관한 언론 담론 분석.” 『ECO』 20(1). 353-398.

- 윤여일. 2017. “강정, 마을에 대한 세 가지 시선: 커먼즈에서 커머닝으로.” 『ECO』 21(1). 71-109.
- _____. 2019. 『광장이 되는 시간: 천막촌의 목소리로 쓴 오십 편의 단장』. 포도밭.
- 이시윤. 2018. “‘두 개의 운동’으로서의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 종교시민운동 축의 복원과 시민환경운동과의 관계 분석.” 『사회사상과문화』 21(1). 169-215.
- 장훈교. 2019. “제주 탐동 공유수면 매립 반대운동.” 『탐라문화』 60. 265-303.
- 장훈교·서영표. 2018. “제주 제2공항과 민주주의 그리고 기반시설 공동관리자원의 가능성.” 『기억과 전망』 39. 336-386.
- 정영신. 2018.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투쟁과 강정마을공동체의 변동.” 『탐라문화』 58. 149-183.
- 제이누리. 2019/06/12. “비자림로 공사판, 이번엔 애기풀소똥구리를 만나다.” <http://www.jnuri.net/> (검색일: 2021/7/9)
- 제주의소리. 2019/10/27. “제주, 강도-살인 등 4대 강력 범죄 부끄러운 전국 1위.” <http://www.jejuori.net/> (검색일: 2021/04/14)
- _____. 2021/7/7. “도민회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사업 백지화.” 촉구.” <http://www.jejuori.net/> (검색일: 2021/7/9)
- 제주투데이. 2019/11/24. “강충룡 “2015년 이후 제주 내려와 제2공항 반대하면 전문데모 쏜.” <http://www.ijejutoday.com/> (검색일: 2021/03/29)
- 조정환. 2009. 『미네르바의 촛불』. 갈무리.
- 주윤정. 2020. “경이와 돌봄의 정동: 천성산과 제주의 여성지킴이들.” 『젠더와문화』 13(2). 79-113.
- 진상현. 2006. “환경운동과 가치변화 측면에서 본 천성산 사례 연구.” 『ECO』 10(1). 73-103.
- 프레스리안. 2020/10/25. “저항의 선언들, 제주도청앞 천막촌 700일.” <https://www.pressian.com/> (검색일: 2021/04/14)
- 카스텔, 마누엘. 2008. 『정체성 권력』. 정병순 역. 한울엠플러스.
- _____. 2015. 『분노와 희망의 네트워크』. 김양욱 역. 한울엠플러스.
- 한겨레. 2019/09/24. “제주도의회 ‘제2공항 공론화’ 통과 … 공론조사까진 험난.” <https://www.hani.co.kr/> (검색일: 2021/04/14)

_____. 2021/02/18.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도민 ‘반대 우위’…후보지 성산은 ‘찬성 우세.’”
<https://www.hani.co.kr/> (검색일: 2021/04/14)

헤드라인제주. 2019/9/5. “제주도 공군기지 추진논란…‘제2공항’과 연계 의혹” <https://www.headlinejeju.co.kr/> (검색일: 2021/7/9)

_____. 2019/09/18. “‘의회가 결단 내려라’… 제2공항 공론화 ‘1만인 청원.’” <http://www.headlinejeju.co.kr/> (검색일: 2021/04/14)

헬프리히, 질케. 2020.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떻게 시장과 국가를 넘어 생각하게 하는가?” 커먼즈번역네트워크 역. (<http://commonstrans.net/>) (검색일: 2021/7/18)

Cangelosi, Elisabetta. 2014. “Commons: Practices of Spaces and Social Change,”
Comparative Law Review, 5(2),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 2017. *Assembl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The Tent Village Movement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Second Jeju Airport

A Commons Movement with Networked Social Movement Characteristics

Park, Suh-Hyun

Research Center on the Commons and Sustainable Society, Research Professor

This study analyzes the features of the movement opposing the construction of the second Jeju Airport that took form as a tent village set up at the front gate of the Jeju Provincial Office. The Tent Village movement was initiated and led by new actors who had not been part of previous social movements in Jeju. Moreover, the Tent Village movement is notably different not only from previous social movements in Jeju led by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locals but also other environmental movements. This paper divides the Tent Village movement into three periods and identifies the movement's characteristics by period. Then, the features of the Tent Village movement are examined focusing on "the constitution of the common," "community-based democracy," and "prefigurative politic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Tent Village movement can be understood as a commons movemen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 networked social movement.

■ **Keywords:** The second Jeju Airport, Tent village at the front gate of Jeju Provincial Office, Commons movement, Networked social movement, Commons

투고: 2021.9.17. 심사: 2021.10.13. 확정: 2021.11.2.